

금주일언 이미 이겨서 악을 받지 않고 이세상 모든 것을 이겼으니 밝은 지혜 열림이 끝없이, 몸매함을 열어 도에 들게되다.
(법구경·술보품 22장)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평동3가 26(40-3492)
FAX: (02)279-1270
76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770-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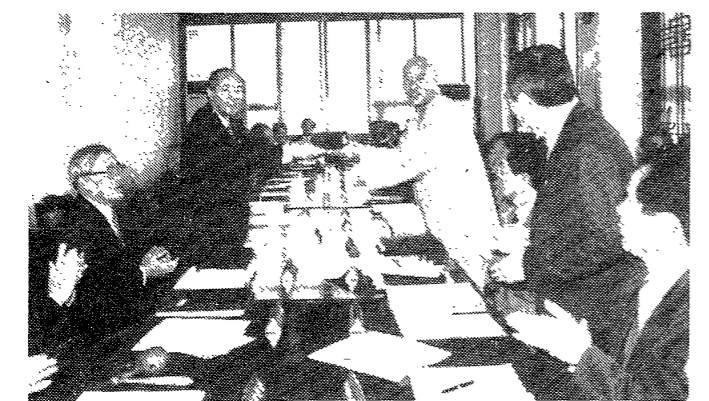


◇등록금 투쟁 선포식이 지난 1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 촉구 총학, 투쟁선포식...예결산공개 주장

'기관적 학사행정 분쇄와 등록금 투쟁 완결을 위한 투쟁 선포식'이 지난 1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뤄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지속적인 예·결산 공개와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등록금 책정협의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학사행정 규탄발언에서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전제수군은 "현재 학교측은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반적 학사행정을 파고 있다"며 "일반대학의 총단결을 호소했다. 예술대 학생회장 김재영(연영4)군은 학교에서 추진중인 제3회 퍼스 건립안에 관해 "학습공간·지치공간

확보를 위하러 아닌 다른 학교가 하나 따라하는 생각없는 행동"이라 비판했다. 또 신입생 김원중(자연과학부1)군은 "학부신입생들의 수강신청이 문제성을 안고 있다"고 말하는등 이날 발언자들의 학교측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문화공연과 각 단대장들의 투쟁결의가 있었고 실천행사를 끝으로 선포식을 마쳤다. 이날 경상대학교와 아간강좌 총학생회는 기초학습권(공간, 교수, 교과과정)확보를 위해 동국대1동 2층과 4층을 점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14일 학교측이 총학생 회측에 보낸 회신에도 불구하고 등



◇속속 돌아오는 '동국사랑'... 등록금전모금을 위해 작은 사람의 실천을 모으자 1백주년기념사업본부가 제작한 저금형이 동국사랑을 가득 채우고 속속 돌아오고 있다. 그 전달식이 오늘 교수위원회의실에서 있었다. (취재부)

총동, 동우장학금 전달 채란장학금 지급도

총동창회(회장=황명수) 산하 동우장학회는 지난달 23일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송석구총장 및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권 12명, 광주권 6명에게 1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황명수 총동창회장은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가입총학에 열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동창회는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10만 동국인이 한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우장학회는 95년 2월 교육청의 설립허가 후 9월 첫 장학금으로 재학생 12명에게 1천2백만원을, 고시생에게 4억1천만원의 기금으로 연 3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문들에게 장학금 모금 운동을 전개, 기본자산 10억원을 목표 하고 있다. 지난 13일 계산관에서 채란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채란 장학금은 전학기 성적 3.5이상에 타 장학금 미수여자를 대상으로 10명에게 학기당 1인 70만원씩이 지급된다. 동우장학금과 채란장학금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동우장학금=구분별(불교4) 신경식(국민윤리4) 남윤석(법학4) 김경록(경영2) 신인우(식물자원4) 김상인(전기공학3) 원운호(지교4) 김경호(연영4) 김선희(경영3) 김민주(가교4) 김시용(정보4) 이상호(정보산업대학원 1학기) 진철호(불교4) 신보영(국문4) 김오환(화학3) 임진섭(법학3) 김도섭(경영4) 남유경(국제경제4) 이상 18명. △채란장학금=전지향(국교2) 신은주(지교3) 이운성(응용생물4) 오현경(법학4) 현혜경(법학4) 홍영미(경제2) 이선주(회계3) 김승희(일본3) 임선향(지교3) 홍진선(국교2) 이상 10명.

제4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의장선출·총노선 수립

제4기 의장선출과 총노선 수립을 위한 한총련 총학생회 연방(의장=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지난 15일 부터 17일까지 강원대에서 개최되었다. 총1천여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15일에 실시된 의장선거에 대하여 1천2백명중 제1대의원 1천5백84명(사교 2백16명) 참석으로 투표가 시작되었으며, 8백70명 찬성57명 반대로 정명기 전남대 총학생회장(해양4)이 제4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16-17일 양일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4-11총선 범미 자주화 투쟁, 월드컵 공동개최가 중요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관원기사 4면)

교육대학원생 2천3백만원 기탁 최재구동문 1천만·동행라이온스 3백만원

최재구 총동창회고문(국문 52층 전총동창회장)이 지난 13일 12시 이상장실에서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최재구동문은 "개교 90주년을 맞아 본교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복원이사장님과 송석구총장님에게 격려드리고 싶었다"고 기탁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대학원(원장=오국근·영영영문학)은 96학년도 1학기 입학자들이 장학금 수혜에 반박과 기부금으로 조성한 동국발전기금 2천3백80여만원을 기탁했다. 또, 동행라이온스(원장=정용길·정

보리수

참사람 열린교육 (無位真人)

중국 임제(臨濟?~867)스님은 한국불교 조계종의 수행방법인 간화선(看話禪)을 주창하신 임제종(臨濟宗)의 개산조이다. 그는 참선수행에 있어서 '회무'라고 하는 독특한 수행방법을 개발하여 제자들을 지도하였으므로 오늘날 종교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큰 스님들마다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육조 혜능은 자성(自性), 마조는 '심(心)'을 반복하였으나 그는 '인(人)'을 말하였다. 임제종(臨濟宗)에서 '참사람(眞人)' 위에 한 차별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눈·귀·코·입 등을 통하여 출입한다. 아직 똑똑히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아라'라고 하여 차별없는 참사람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육방법은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회무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근원적인 인간성을 자각하고 있다. 이것이 참사람(眞人)이다. 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남과 더불어 살 수 있으며 자신을 관조할 줄 아는 사람, 즉 참사람은 참사람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참사람을 만들기 위해

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無位). 차별 없는 교육, 지위없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차별없는 교육이란 지위, 나이, 신분, 지역,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가르침이다. 또 지위없는 깨달음이란 무한한 깨달음이며, 영원한 깨달음이고,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길을 가는 깨달음이다. 이것이 임제 스님의 제자 지도방법이다. 본교에서는 새로운 교육지표를 표어화 하기 위하여 고심하다가 임제 스님의 '무위진인(無位眞人)'에서 '참사람 열린교육'을 찾게 되었다. 이는 건학이념과도 일맥상 통하며, 조계종의 총림대학으로서도 명실상부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동양적인 교육목표이며, 불교적인 방법론이고, 선종(禪宗)의 교육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동국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본사사령

- ◇임기만료
 - ▲편집장=김소영(사범대 역교4)
 - ▲편집부장=이민영(법정대 법4)
 - ▲취재부장=곽주영(이과대 통계4)
 - ▲문화부장=이유리(문과대 국문4) (이상 3월 18일자)
- ◇신임부장
 - ▲편집장겸 취재부장=박대용(경상대 무역3)
 - ▲편집부장=신형섭(상경대 국제경제3)
 - ▲취재2부장=이현주(자연대 가교3)
 - ▲사회부장=송선영(자연대 가교3)
 - ▲문화부장=박요선(상경대 경제3) (이상 3월18일자)
- ◇임기차
 - ▲최승일(불교대 인철2)
 - ▲한누리(문과대 국문2)
 - ▲박민진(법과대 법2)
 - ▲고지은(사회과학대 사회2)
 - ▲양지연(사회과학대 사회2)
 - ▲김상만(사회과학대 신문방송2)
 - ▲이태훈(사회과학대 신문방송2)
 - ▲이영규(공과대 전자공2)
 - ▲이성웅(인문대 고미사2)
 - ▲신용우(상경대 관경2) (이상 3월 18일자)
- ◇의원면직
 - ▲박미희(사범대 역교2) (이상 2월 29일자)

알림

제1196호는 4월1일자로 발행 됩니다.

동대신문사 제38기 수습기자 모집 기획광고

말

로 합시다

모집안내

모집인원: 서울 및 광주권 퍼스 00명
 응시자격: 1학년 남녀 재학생
 모집분야: 취재·문화·사건기자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지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원서접수: 3월20(수) 오후5시까지
 시험일자: 1차 3월20(수)오후6시
 2차 3월21(목)오후5시
 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문화·사건지원자는 필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시험장소: 학림관 201(서울캠퍼스)
 원료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광주민주외우동 전·노 전직대통령의 구속 등록금과 학내공간문제 이는 말을 폭력으로 목살안 결과이며, 말이 진정한 힘을 발휘한 결과이며, 말이 없었던 결과입니다.

우리 주위엔 명령과 지시, 선인과 구호는 난무하고 있지만 참된 말은 없습니다. 동대신문사는 참된 말만을 일구고자 합니다.

만편, 동대신문사는 미국 CNN, 중국 신화사 통신, 안겨래신문 등의 자유요구를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단, 일본산개이신문은 거절할 겁니다. 여기 가까이 동정할 마음이 넘지는 세내기들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DU 10번게시판이나 ID: dgress@net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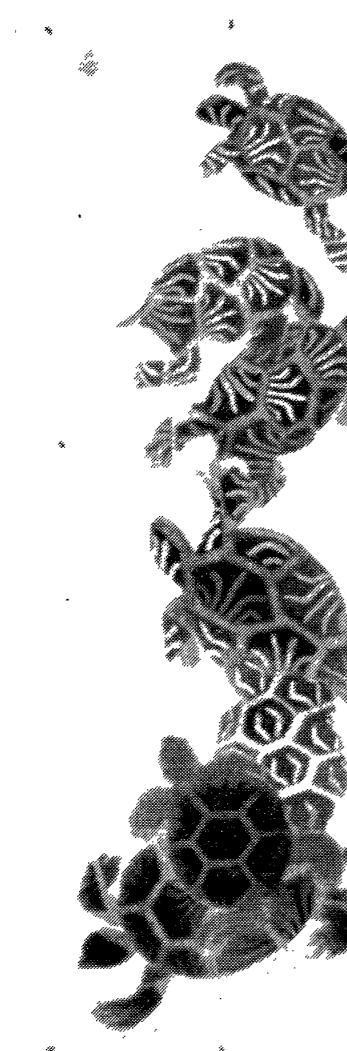
문의는 02)280-3491-2 0561)770-2057

설레임으로 대학이라는 대열에 서서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을 다듬고...

세차게 불어대는 찬 겨울바람속에 자리잡은 차가운 건물. 그것이 나의 동국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편입시험 그리고 얼마후 합격!

얼굴을 보고 강의실에 강의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온일 통통 때울리런 듯한 웃음이 일기로 번진다. 일주일이나 지나고 교수님들의 강의도 시작되었다.



◇초대그림

군구도 (群龜圖)

나부영

미술학과 명예교수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속한 일들에 관한 관심과 그 일들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젊은 모습에 "아! 참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구나"라고 엔지 모를 부끄러움이 내게 일었다.

안순자 (자연과학대기독교학과)

수첩배포소홀 학생회의 노력필요

올해 2학년엔 제각종인 일문과 한 학생이다. 문과대의 한 학생으로서 비록 작은 문제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려는 의도는 학생회가 학생회로서의 의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장성훈 (문과대 일문과)

현행선거부정 방지법 문제 많아 정치참여 제한하는 제도개선 필요

4.11일 총선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 또한 예년의 선거와 다름없이 출마자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유권자들의 두관심이라는 상호 모순된 형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 그 명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와 81조(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동법 10조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다른 법률(18·19세의 자를 성인처럼 취급하는 법률)과 형평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상원 (법과대 법학과)

▶노가리입니다. 태평양에서 잡히죠 우습죠!! 전대머리, 인니다. 두발이 없다는 뜻이죠 환장합니다. ▶구 소련 쿠데타 실패를 되씹으며... ▶어이없어 아무말도 할 수 없

을 우습게 달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P-S 굵고 짧게 산다는 사람들이 이 두양반 들인가? ▶전북대에 해당하여, 노랑이나 들어라. ▶전·노씨에게 주는 형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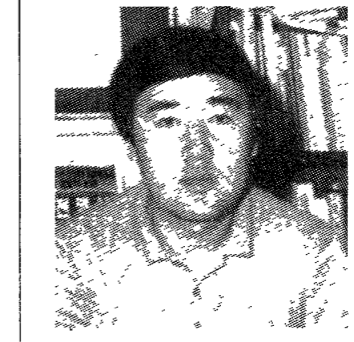
소이다! ▶사는데 뭘지... ▶뭇 수습에 땀뻘지 말고 역사 앞에 진정 무릎을 꿇어라. ▶전·노일당 정치하진 삼신할 때 타도하자! ▶두양반에게 감사한다. 왜? 은 국민에게 뭇천만엔 뭇백억

전·노씨에게

두양반을 매일 광주 금남로에 출근하게 한다. ▶강욱에 갇힌 주제에 웃은 메이커네! ▶전부 노(NO) ▶전전공공하다 결국 노밍이 들었구나.

동/문/칼/럼

또 다른 고민



어느날 몇 해만에 모교를 찾았다. 졸업증명서가 필요해서였다. 학적과에서 졸업연도와 학과, 이름을 써서 발급신청을 하고는 교정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다. 본 담양의 감상을 준비하고 찾아온 모교의 모습은 정겨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학적과로 찾아온 나는 깜짝 놀랐다. 쪽문을 통해 내게 전해진 담양 여직원의 예기는 학점이 모자라 졸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림자가 없으며 여직원과 한참을 싸우다가 잠을 깨었다. 꿈을 꾸는 것이었다.

따워였다. 역시 그림자가 없으며 한참을 하다가 잠에서 깨곤 했다. 적어도 꿈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 환호작약 해 본 기분이 별로 없었다. 불혹이 지나며 그런 꿈은 더 이상 꾸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강박관념에서 풀려난 지 몇 해나 지났을까? 언제부턴가 나는 꿈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도 모를 또다른 고민과 마주하게 되었다. 신문을 펼치면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알리며 그에 따른 준비를 촉구하는 기사가 넘쳐나고, 인터넷 혁명을 운운하며, 학교 정보화(IEE)라는 말이 매일 귀를 울리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슬기롭게 변화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보며 컴퓨터에 관련한 대책없이 손만 내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위대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컴맹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원고지를 앞에 놓고 손에 잉크를 묻혀 가며 쓰는 글이 낭만이 있더니, 시험 문제도 컴퓨터로 풀어 출제하면 시험이 훨씬 정겨워졌다더니니 하며 억지라도 부랄·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틈에 젊은 후배들은 물론 연민한 주연의 어른들까지 컴퓨터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이 되고 말았다. 아, 나는 어쩌자고 남보다 앞서 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매사에 무신경할 수 있는 배정미저 없이는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가? 출제를 위해 더듬거리며 한 손가락으로 겨우 위드를 두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찜찜스럽다.

정조채 (신광고교 교사 국문 79졸)

목errick

- 21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글구 많이 행복하라고 전해주세요. - 프마 선
- 은숙, 재훈, 창수 전과자 된 것 축하한다. - DUBS-F-C
- 전자공학과 '돌벼'의 입방과 신입생 들어온 것을 축하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 2971 일동
- 우근아 현욱아 당선 축하한다!! 현석아 석기아 낙선을 예도한다!! - 참여와 공동의 지성창조 제9대 2학년 법대 학생회장
- 나석연의 약혼을 축하하면서 - 91 경제동기들
- 우리 동아리 그누형(근우)이 군대를 간대요. 축하해 주세요. - 철여울 1971 handsome boy
- 민족사연구회에 입회하신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언제나 나라사랑과 역사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 제11대 민족사연구회회장
- 이과대 자연과학부 학년 학생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 윤대협
- 국교과 이쁘니 영실이의 생일이

- 간을 확보합니다!!
- Civilo! 기사시험 잘 찍어라!!! - 초목 2002학번
- 신입·복학 해방전우회를 찾습니다. 012-820-5333(화장 배배) - 동대 해방전우회
- 새출발하는 제12대 동아리연합회에 항상 투쟁의 신심이 깃들기를... - 전 동연집행부
- 원덕원이 모든걸 응서할테니 다시 올라와라. 3월18일 유스호스텔 입방식을 해요. - Hostel 1671 일동
- R·E·D·S의 출발에 힘을 모두 지쳐있길요. - 한
- 복학생은 억울하다. 공대학생회는 자성하라. '·' 학생수첩을 달라. - 정·X, 복학생
- 학술문화관에서 자지공간 확보를 위해 정거농성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정거농성에 한마디 합니다. '학' 생을 알로보실니까? - 동·心-

- 다함관 식당
- 18(월) 온누리(1000) 정경(1300)
- 19(화) 맥북이 맥(900) 김자(1500)
- 20(수) 민주국 맥(1000) 오영(1000)
- 21(목) 온누리(1000) 최영(1200)
- 22(금) 온누리(1000) 김자(1500)
- 23(토) 김자(1500)
- 동국대 학생식당
- 18(월) 온누리(1000) 민주국(900)
- 19(화) 맥북이 맥(900) 김자(1500)
- 20(수) 김자(1500) 온누리(1000)
- 21(목) 맥북이 맥(900) 김자(1500)
- 22(금) 맥북이 맥(900) 김자(1500)
- 교직원 식당
- 18(월) 민주국(900) 민주국(900)
- 19(화) 민주국(900) 민주국(900)
- 20(수) 민주국(900) 민주국(900)
- 21(목) 민주국(900) 민주국(900)
- 22(금) 민주국(900) 민주국(900)

동/악/광/장

- 때우야 잘가라! 춘천행 축하(?) 하고 98년 강의실에서 보자. - 동신이가
- 승범이의 생일을 이쁜 누나가 엄청 축하해 줄래는 꼭 짝을 만났으면, 해해 - Impact일동
- 서울 대성고·선일여고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 동문사람들
- 21일은 풍나물국을 잘 끓이는 여자! 유수연님의 생일 날이여. 무지무지 축하해요. - 너너너너 새내기들
- 정준이형, 정민이형, 대성이형 등등 복학을 축하드립니다. 힘찬생활, 박수드립니다. - 집집이
- 3월13일은 가정교육학과 개강과 타하는 날 무지무지 축하해 주세요! - 한 학우
- 너무나 사랑스런 정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제가 비록 군대에 있지만 많은 동대 학생여러분의 사랑 부탁드립니다. - 기섭
- 구원기만 했던 상응이와 응우의 탈수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고의 기자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활달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 열에서 지켜보는 동기가
- 건축이념 구현 기간동안 불교문화대, 석림회, 불교학과, 불교아동학과, 국악과, 불교학생회등 여러불교단체에 소속하신 학우님 열심히 뛰세요. - 중앙정보부
- 그리고... ■민영이에게 관심을... 떨어진 X, 우리의 이민영군에게 따뜻한 애정을... - 두목이
- 학생회관 1층 로비에 동아리 우편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동아리연합회
- 동국농구부에서 '투키'를 모집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 속이와 윤이가
- 법정대 학우 여러분. 백·천·지 추종자를 모으라! - 광범이
-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으니 나 현주는 남자사냥을 떠난다. - 3월14일
- 국사학을 전공하는 신입생과 F반 학생들 환영합니다. - 어느 국사학과 학생
- 우리출범식 고사때 돼지 쿠키명 팻말을 생활합니다. - 인문대 회장
- 동~

온방골

- 새내기 관광경영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축(여유) 축하합니다. - 멋쟁이 93 LeeKH
- 이무형군의 득남을 축하하며... - 친구
- 영아영문 95학번 이상화여님의 득녀를 축하하며~

시사논단

통합선거법 허와 실

'돈은 묶고 입은 풀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우성기
법정대 법학과 교수

지난 1994년 3월 16일 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이하 통합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선거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돈 안드는 선거' '공명·공정선거'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후보자들의 재산 공개함으로써 부정재산 또는 비리재산을 가진 후보들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불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법의 두번째 중요한 목적은 '여권의 프리미엄'까지도 희석시키면서 여야후보간의 공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번째 목적에 관한 동법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역의원이나 후보자마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제정당시의 미비점 때문에 통합선거법은 벌써 627 선거전에 세차례의 부분적 손질이 있었고 '6·27이후에 두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통합선거법의 제규정은 전체적으로 6·27선거에서 나타난 법률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기득권수호와 그 강화를 위한 개악의 성격이 짙었다.

먼저 공직공명선거라는 통합선거법의 독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거공명제를 필적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고 선거비용제한을 완화하여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점 및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측면에서 과거에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허용되던

의정보고활동 등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역시 선거개시일전 30일 전에만 가능하던 당원단체대회, 확대당직자대회의 및 당원교육 등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선거기간중에만 금지한 것은 선거의 기회균등 및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현행 선거법규정은 법정선거기간을 1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 및 정치신인들은 17일간 밖에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데 비해 정당이나 현역의원들에게는 선거개시일 전일까지 의정보고 활동이나 당원교육등을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봉당정치에 익숙한 국민들로부터 세대교체권 또는 참신한 인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항이라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에서 여야당은 6·27의 경합상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에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던 자원봉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신 유급선거운동원의 수를 2배가량 늘림과 동시에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돈 안드는 선거'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선거를 부추길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두번째로 '여권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여야후보간의 공정한 대결을 보장한다는 동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통합선거법은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그 공표가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단체의 선거운동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후보들의 자질검증이나 일반시민들의 판단력을 도와 줄 일반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이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까지 막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풀다'는 통합선거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각종 언론의 정부입적 홍보 특히 TV를 통한 현정부의 과장홍보도 통합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작적 성격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는 참신한 세대교체나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 아니라 안정적 권력의 획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5 18 미국개입 폭로

미, 공모책임 인정 사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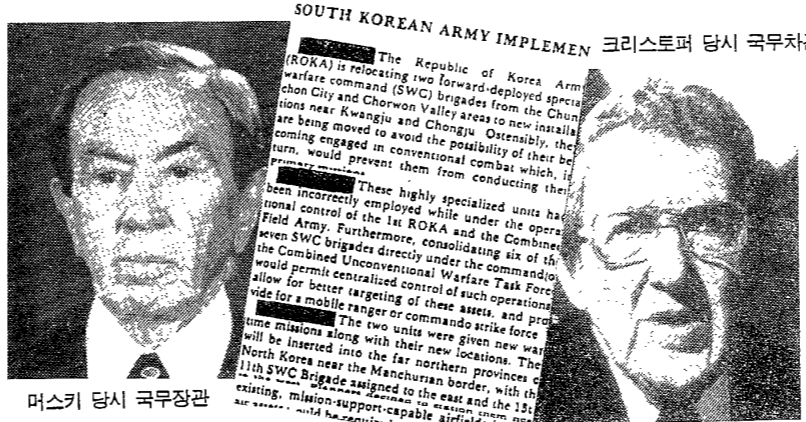
'군사적개입 고려' 사실 밝혀져

미국이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전투원들의 군부임명계획을 사전 인지했음은 물론 군대의 이동을 승인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한 미국 기자에 의해 폭로되었다. 미국 뉴욕의 일간지인 (저널 오브 커머스의) 웹 사복 기사는 오렌 주적과 2천 여건에 이르는 미국무부 비밀문서의 분석, 관련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80년 당시 미국의 518 공모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미국은 광주문제가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며 89년 국회 광

29선언 유도 등을 통하여 정치적 격변기마다 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5.18당시 미국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는 군작전지휘권 장악 등 종속적 군사관계를 기초로 하여 한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의 의도하는 정권을 창출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미국은 한국군의 전사적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도높은 수임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백하고 부도덕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자주권 보장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 당사자



머스기 당시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당시 국무차관

추정문헌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해, 전투원들의 군번제 투입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답변서까지 보냈다. 더구나 미국은 비밀문서를 통해 5.18내란학살 공모사실에 밝혀진 지금도 '89년 공개한 성명서' 외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89년 답변서와 이번이 확인된 비밀 문서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는, 아니 해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과 한국민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존위권 80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광주의 선혈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시기에 한국인들은 어떤 지도자에게는 무조건 폭동하는 '들쥐들'이라고 발언하고 '부리'를 잘라버릴 필요가 있어서 한국군부와 협조했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한국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부세력을 지원한 것이다. 명백히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모습은 미국이 한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이번 미국의 518공모사실의 확인은 왜곡된 한미관계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주의 참혹한 실상이 한반도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미국은 5.18뿐만 아니라 4.19당시 이승만에게 대한 하야 압력, 87년 6월항쟁 시기에 6·

간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은 요원하다는 인식이 점점 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광주시민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는 5.18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해명과 사과, 한미행정협정과 전사적전지시권을 포함한 군작전지휘권의 반환 등을 통해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총련 등은 미국대사관 항의방문을 통해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였던 광주전남연합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을 5.18학살의 공동진범으로 재소하는 방안을 의회와 연대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다던 지미 카터씨를 고소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5.18 16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5월에는 5, 6공 전재의 완전정산과 더불어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민족자주권 실현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더욱 거세게 터져 나올 전망이다.

미국은 5.18내란학살 공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의 자세이며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한범
전국연합 조직부장

사설

등록금책정의 생산적 재논의 필요

사람대학 등록금 자율화조치이후 해마다 고졸인상된 등록금이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볼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상된 등록금만큼 교육의 질이나 환경도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학교운영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무겁게 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교육의 혜택을 받는 댓가로 등록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고 볼때 수혜자의 범주는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 학교법인, 학생, 기업 모두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고는 등록금 인상률을 15%로 책정한 이후 몇차례의 학교당국과 학생회간에 협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은채 고지서를 발송했다. 급기야 등록금감안내서한이 각가정으로 발송되고 처음 학교측이 상정한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측이 제시한 인상률에 반발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고졸인상률도 문제지만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먼저 결산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관행대로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과다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3월에 회계가 시작되는 학사행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결산과 협상률이 불어 제시한 예산책정액이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협상을 예산책정안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남기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밝힌 이월금액도 너무 커서 굳이 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릴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가 적지 않다. 무지에서 비롯되었던 오해건간에 학내구성원에게 이런 사실이 올바르게 밝혀져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9주년을 맞는 지금의 시기가 앞으로 등록금발전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는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학내구성원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결실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들이 단순히 고졸인상만을 문제삼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1천명이 넘게 모였던 지난주 총학추천의 집회에서도 확인되었다. 학내구성원으로서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나 쓰여지는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등록금 고졸인상이 바로 학교발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합당하고 근거있는 책정으로 학내구성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간에 오고간 문건에서도 알 수있듯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려는 의지는 서로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교육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학교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등록금 협상이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의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계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중국만평

강성수



중국과 대만, 너두도 낯익은...

"마당발"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외칠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삼양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공부함으로써 현지적응을 추구하는 海外과연제도-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와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과연제도도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영역: 화성, 식품, 사료, 화성, 금융, 무역, 기계, 환경,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학
- 해외활동: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지점망 확대에 주력



삼양, 삼양중공업, 삼양식품, 삼양화학, 삼양건설, 삼양증권, 삼양생명, 삼양투자, 삼양에너지, 삼양서비스, 삼양인재개발원, 삼양교육연구소, 삼양연구소, 삼양연구소, 삼양연구소

편입학 제도 진단

‘문턱 낮아진 편입학 갈길 멀다’
취지살려 교육환경 향상해야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부의 대학편입학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올봄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인원이 낮아진 편입학 ‘문턱’을 이음 대거 타대학으로 이동했다.

본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2월 14-15일 양일간 실시된 등록 마감 결과 총 1천1백60명(일반편입학:1천39명, 학사편입학:1백21명)의 학생이 편입학했다.

이는 연세대 20명, 서강대 85명, 성균관대 1백2명, 외대 6백4명에 비해 많지는 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이런 편입학 급증현상은, 군·일반 휴학생을 결원으로 인정해 그 인원을 충원이 가능토록하고, 학사편입학정원을 입학정원의 2%에서 5%로 확대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편입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학교육기획을 확대한다’는 편입학 확대 실시가 전공과 학교가 맞지않는 3만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편입학을 하는 교육의 질적수준, 졸업사실률, 편입생 선발시험 실효성, 재학생들의 학적·학내적 문제점과 군·사립대, 지방대 도태의 학외적 문제가 산적할 것으로 예상돼 ‘전과판파’의 부작용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학내적 문제점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첫째, ‘수월한 대학 편입학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하는 문제이다. 현상적으로 비취진 결론만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교육 질의 퇴보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입학 확대를 지켜본 재학생 김일주(물리·2)군은 “편입생, 복학생까지 들는 전공강의는 기존 정원에 20명정도 초과된 70명”이라며 “교수 1명에 70명 학생이 듣는 전공수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편입생 대부분이 전공을 바꿔 편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못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수업받아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역에 유망한 이들이 전공과목과 교양강의에 불리면서 강의실만인사태와 학생관리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더해 교무과 이철중 교수는 “강의실, 교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가 인가한 정원을 바탕으로 편입생·복학생 편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기존강의실로 얼마든지 편입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강신청으로 인하여, 많은 강의실에서 포화상태가 야기되고 있다. 구체적 예를 들면, 9백46명이 신청한 ‘영희의 이해’를 비롯한 총 38개의 강좌가 초과인원으로 분반된 반면, 10명 내외의 신청인원으로 32개의 강좌가 폐강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존 강의만 개설할 수만은 없다는 게 학교측의 입장인 만큼

의실 포화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될 듯 하다.

둘째, 졸업사실률과 타학교에 비해 유난히 많은 편입생 수이다.

본교의 경우, 현행 등록율과 올해 2월 중순까지 휴학원, 복학원 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결원을 산출해, 타대학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대학의 경우, 현행 등록율만을 기준, 책정해 그 수가 비교적 적다. 수용할 수 있는 제반조건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다다익선’의 재정이적 효과성만 추구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수회의 한 인원은 “등록율이 6.7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등록금 의존율이 80%가 넘는 학교에서, 등록지 못한 2.30%의 휴학생 수로 학교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 편입생 대폭 확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준철 학원자주화추진 위원장(아간강좌 경제4)은 “편입생 등록금은 예산에 포함, 책정되지 않았다”며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수의 편입생을 받아들일 정도로 학교재정구조가 위태로운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세째, 선발시험의 실효성이다. 본교의 경우 문재은형식의 유형으로 출제된 영어 45문항(90%)과 면접(10%)을 기준으로 편입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편입생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 면접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전공이상의 기본적 자질을 구비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영어, 면접에 준하는 인성적 방법을 탐구하여 전공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교 불교학과 3학년 편입한 학생의 경우 “영어시험위주로 치러진 편입제도가 불교대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학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현재, 홍익대는 전공, 영어, 면접시험을 실시해 본교의 상황과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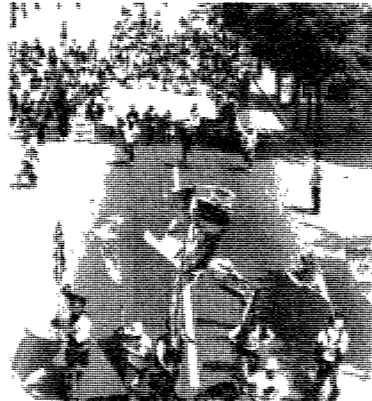
네째, 결원 대부분이, 재학생들의 일반 휴학이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학생들의 진로,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재학생 관리의 허술한 부분을 반성하는 목소리이다.

한편, 학외적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편입자율화는 군·사립대, 특히 일부지방 대학의 존재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절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대 재학생들이 편입학 시험준비를 위해 7~8개월간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들의 지방대 미등록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하나씩 속출하고 있는 부작용에서 보여 지듯 편입학 자율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학선택자유를 부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대학이 처한 현실을 비추어 볼때, 학생들의 대거이동에 따른 불안정과 교육의 질적하락을 대학 스스로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누리 기자)

◇ 제4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 -의장에 정명기군 당선

4·11 총선 대응논의·교육재정 확보 결의문 채택
학생전국조직 10년 맞아 한총 성숙된 모습으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임시의장=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원대에서 개최되었다. 제4기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고 96년 총선 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는 의장 중앙상임위 각대학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1천여명의 대의원과 참관인, 대학언론기자, 새내기 대표단 등 총 3천5백명.



△한총련은 명실상부 대의원의 대표조직으로 그 합법적 위상을 획득하였다는 정치인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적 관심속에 성황리에 치러진 제3기 한총련 출범식의 모습이다.

15일 개막제 행사 후에 실시된 의장선거는 대의원 6백62명의 추천을 받아 단독 입후보한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해양 4)후보가 931표(총 870표)의 지지를 얻어 제4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의원 대회는 한총련에 대한 새내기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과 새내기의 행사가 구분되어 전개되었으며 15일 개막제와 의장선출, 16일 17일 대의원대회 본회의, 17일 기자회견과 결의대

회 시가행진 및 집회 등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새내기를 위한 대의원대회, 새내기 새세대추진, 새내기 한마당 등 다채롭게 행사가 펼쳐졌다.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16-17일 양일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입사제도 활동 특별기구장 선출(조동우 위원장, 학자추 위원장, 대변인) △출발식 준비 △민족민주운동 조직발전을 위한 특별결의 △통신사실보고 논의 및 결정안건

으로 의장선출 △규약개정 △총선준비 확정 △4.11 총선투쟁 △2천2백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한총련 통일단결 결의문 △3·25 총선거 투쟁 결의문 △학원사실 공안탄압 분쇄 결의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결의문 △반미투쟁 결의문 △학생운동 10년 기념사업 특별결의문 △대의원대회 당면 투쟁결의문 등이 있다.

4·11 총선과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가 중요시된 이번 논의에서 한총련은 이번 총선을 김영삼 정권 중간평가의 장으로 보고 대선자금 공개, 대국민 선전을 통해 김영삼정권 심판, 신한국당의 참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민족화해와 통일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남북공동 축구대회를 제안, FIFA에 염서 보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학생운동 전국조직 10년째(전대협 6년 한총련 4년)를 맞이하는 해로 4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96년과 21세기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백만학우를 대표하는 한총련은 이번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한 총선준비와 정명기 한총련 의장을 중심으로 대의원의사화 사업을 한층 진척시켜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부)

동악로

선배의 얼굴

“95학번 다 들어와!”

지난 13일 영어 영문학과 학생회실에서

“등록금 투쟁 선포식”을 마치고 돌아온 영문과 부학생회장인 정명기 씨가 95학번들을 불러 세웠다.

“후배들이 너희를 보고 무엇을 배우지나, 추운바닥에 앉아 끝까지 투쟁하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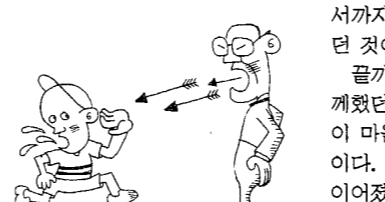
“아마 부모님들은 등록금을 단 얼마라도 깎을 수 있다면 당장 도서관에 나와 몇시간이고 앉아 계실거다”

“술 잘 사주고 밥 잘 사준다고 해서 좋은 선배는 아니야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주위는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다는 듯 상념이 가득한 표정이다. “됐다 이제,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 좀 흥분했다면 미안하구” 선배는 말을 마쳤다.

이날 영문과 2학년 학생들의 상념에는 무엇이 담겨졌을까. 불쾌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후배들에게 부끄러웠는지,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는지 아무튼 그들의 표정엔 상념이 가득 했다. (김희동 기자)



◇ 한총련 유명인 조동우위원장을 만나
수해지원·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제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정명기·전남대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대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유명인(본교 총학생회장·불교4) 조동우 일 위원회(이하 조동우)의 중점사업과 전개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96년 조동우 사업의 총방향을 제시한다면,

=96년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실현의 해로 정하고 반외세, 반독재, 평화통일 실현을 그 목표로 두고 있다.

-96년 조동우 중점사업은

=남북 청년학생 공동연대 투쟁의 활성화와 북한 수해구호 지원운동,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2002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2월드컵 남북공동개최 추진에 중점을 둔 이유와 구체적인 전개 방법은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는 민족화해

와 통일 분위기가 조성될 좋은 계기가 생각된다. 단순히 행사 개최에 의의를 두기보다 한민족임을 절감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청년학생 축구대회의 제안, 백만의 벗지달기, FIFA에 염서보내기 운동을 전담하여 민족 대단결 의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통일위원의 해로 통일사업에 집중을 했다. 올해 조동우 사업계획을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작년에는 자주 민족, 통일을 총체화 시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통일 구국 운동에 치우쳤다. 그러나 올해는 자주, 민족, 통일을 별개로 보지 않고 반미투쟁, 5·18학살사건 원전처리, 반YSD 등의 민주화 투쟁을 원있게 펼쳐나가는 가운데 민족의 대단결 의식을 드높여 통일 사업을 앞장설 것이다. 통일이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불만 작년보다 한층 질 높은 통일운동이 전개되리라 본다.

-조동위원장 이기 이전에 본교 총학생회로서서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선 동악의 모든 학우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조동위원장을 결의 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한총련 조동우 사업과 동악의 일민학우가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 남아 열심히 일하고 개강초부터 등록금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는 우리 간부들이 들춰내며 등록금 투쟁을 꼭 승리해서 한총련에서 모범이 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기영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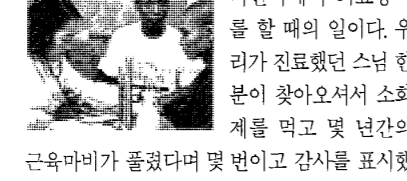
국경을 초월하여 가슴에서 가슴으로 사랑을 전하는 삼성화재 스타지오 국제봉사단.

지난 1월29일부터 2월14일까지 삼성화재 국제봉사단은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삼성화재는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돌아왔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할 모습을 여기에 짧게나마 기록하고자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만병통치약

모든 병에 효과 있다는 만병통치약.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만병통치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미얀마에서 만병통치약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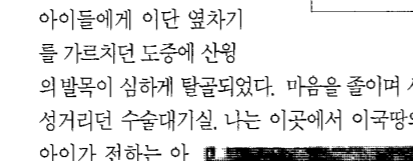
미얀마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의 일이다. 우리가 진료했던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고 몇 년간의 근육마비가 풀렸으며 몇 번이고 감사를 표시했

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미약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사회적 처방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병이 나았던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믿음의 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와 인간애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이번엔 깊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의료팀 이상협 (서울대 의대4년)

태권도로 맺은 ‘산림’ 과의 우정

“태권도, 코리아!”를 외치는 미얀마 호랑이 꼬아윈의 아이들. 서투른 발음에 웬지 가슴이 뭉클해져 음을 느끼며 나의 봉사 활동은 시작되었다.

봉사 4일째, 하루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가는 아이들에게 이단 옆차기를 가르치던 도중에 산림의 발목이 심하게 탈골되었다. 마음을 졸이며 서성거리던 수술대기실. 나는 이곳에서 미국망의 아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걱정하는 나를 오히려 위로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산림은 계속 웃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며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조금만 이파도 신경질을 부리던 나는 홀로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내 자신을 반성 해 보았다. 단순한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의 생각했던 나에게 그 따뜻한 마음과 그와 함께 나는 이야기할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곳 미얀마에서 작은 것을 주고 귀하고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간다.

예체능교육팀 백 승 휘 (성균관대사회복지학과1년)

않도록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행동을 잡았다. 뒤에 탄 나에 대한 배려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작지만 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는 다인종 향 한 깊은 배려. 이번 자원봉사는 나에게 삶의 진로와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환경위생캠페인팀 유 제 도 (연남대 환경학과4년)

이래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미얀마의 수도 양곤시에 있는 국립재활원. 마치 우리의 50년대 시절 학교 같은 낡은 건물.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부터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먼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투른 손때에 내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의사와 간호원들이 쫓아 나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더러운 손이나 속옷되지 않은 의료기 구들에 발정된 내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들 진실으로 걱정해주고 내눈에서 작은 티끌 하나를 꺼낼 때 모두들 박수를 치며 기뻐해주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비싸다는 안약 한 통을 쥐어 주셨을

마음을 흥얼거리는 사이공 소녀

도시전체가 오토바이 자전거의 홍수 속에 술렁대는 사이공. 이곳에서 나는 AIDS와 헌혈에 관한 캠페인을 현지 적십자사의 회원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때 만난 사람이 18세의 틴이라는 긴버러 소녀였다. 요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틴은 아리랑 노래의 가사를 듣고 다니며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 캠페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리랑을 흥얼거리던 틴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지

때 눈물이 땀 흘렸다.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온 나. 지금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과 사랑,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장애인지원팀 이상희 (연세대 경영학과4년)

베를러 갔다가 배우고 왔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미얀마의 수도 양곤시에 있는 국립재활원. 마치 우리의 50년대 시절 학교 같은 낡은 건물.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부터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먼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투른 손때에 내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의사와 간호원들이 쫓아 나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더러운 손이나 속옷되지 않은 의료기 구들에 발정된 내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들 진실으로 걱정해주고 내눈에서 작은 티끌 하나를 꺼낼 때 모두들 박수를 치며 기뻐해주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비싸다는 안약 한 통을 쥐어 주셨을

마음을 흥얼거리는 사이공 소녀

도시전체가 오토바이 자전거의 홍수 속에 술렁대는 사이공. 이곳에서 나는 AIDS와 헌혈에 관한 캠페인을 현지 적십자사의 회원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때 만난 사람이 18세의 틴이라는 긴버러 소녀였다. 요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틴은 아리랑 노래의 가사를 듣고 다니며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 캠페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리랑을 흥얼거리던 틴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지

때 눈물이 땀 흘렸다.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온 나. 지금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과 사랑,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장애인지원팀 이상희 (연세대 경영학과4년)

베를러 갔다가 배우고 왔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미얀마의 수도 양곤시에 있는 국립재활원. 마치 우리의 50년대 시절 학교 같은 낡은 건물.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부터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먼저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투른 손때에 내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의사와 간호원들이 쫓아 나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더러운 손이나 속옷되지 않은 의료기 구들에 발정된 내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들 진실으로 걱정해주고 내눈에서 작은 티끌 하나를 꺼낼 때 모두들 박수를 치며 기뻐해주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비싸다는 안약 한 통을 쥐어 주셨을

마음을 흥얼거리는 사이공 소녀

도시전체가 오토바이 자전거의 홍수 속에 술렁대는 사이공. 이곳에서 나는 AIDS와 헌혈에 관한 캠페인을 현지 적십자사의 회원 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때 만난 사람이 18세의 틴이라는 긴버러 소녀였다. 요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틴은 아리랑 노래의 가사를 듣고 다니며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 캠페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아리랑을 흥얼거리던 틴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지



◇ 등록금 책정 과연 타당한가

“근거불충분한 과다책정은 안된다”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본교는 9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15%로 책정한 고지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방학 중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와의 협상지리에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에서 제출한 '96학년도 등록금 관계자료'를 통해 본교의 등록금 15%인상근거가 합당하지, 책정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전진자)

89년도 등록금 자율화조치 이후 해마다 고율로 인상되어온 사립대학의 학생납입금은 현재 그당시 두배를 넘고 있다. 단지 등록금이 교육인상된 것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는가를 반문함과 동시에 교육환경의 개선을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등록금을 많이 내야 학교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과연 교육환경 개선에 그대로 쓰여지는지, 합당한 등록금은 오르고 있는지 학생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가 제출한 '96학년도 등록금 관계자료'를 보면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지출부분을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먼저 올해부터 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행대로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출예산이 과다 계상될 수 밖에 없다. 학교측은 95년도 결산은 4월이나 산출할 수 있다고 하나 대학교육연구소측은 "예산편성 직전까지 집행된 전년도 예산액과 남은 기간동안 집행될 예정액을

합한 가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과다 책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는 지출부분을 살펴보자.

47%로서 가장 크게 지출구성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이다. 인건비의 항목에 있어 산출근거를 신규교수 81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1학기에 32명 채용했음으로 2학기에는 49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자로는 1년단위임으로 2학기 채용교수의 1학기 지급분급은 제해야 하며 예산상의 계산이 맞으려면 2학기에는 98명의 신규교수를 채용해야하는데 그것은 지켜볼 일이다. 게다가 신규교수나, 의대교수의 거의 7-80%를 차지하는 임상교수의 인건비는 부속병원전임으로 총당되어야 한다. 또한 이자료상에는 이미 2월에 7인의 교수가 퇴임한바 있는 퇴임교수 감소분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2월말 임급임상이 95%로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상의 10%보다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율은 8%를 차지한다. 연구수당과 연구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은 거론하지 않겠으나 논문발표 등 현재의 연구실적이 그러한 지원의 결과물로 충분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연구비지원이 연구발달에 기여하고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학생경비는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비율은 납입금의 5%정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에 조금 못지않다. 그뿐만 아니라 학과 조교조차도 실질비율비의 내역을 잘 모르고 있거나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충분히 학과의 특성을 확



◇매년 등록금책정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학생회간 협상이 수차례 열리지만 별다른 생산적 성과도 없이 일방적인 고지서 발부에 그쳤다. 사진은 금년도 등록금협상의 한 장면.

용, 전공에 유용하게 쓰여질수 있는 실험실습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의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다. 또한 학생경비에 업무추진비도 7억정도 책정되어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자체도 문제지만 예산과의 관계자도 그 쓰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명목은 없애지고 학생들에게 바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올해의 교육시설확충은 약 44억8천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국고보조기기매입, 연구교육대학 컴퓨터매입, 전산망 2차설치, 서울 경주 기기매입, 도서관 광파일시스템 설치, 도서분발장치

시스템 설치, 대학종합평가대비 기기매입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계속 추시해야 할 것이다.

일산캠퍼스부지로 예상되는 교육용토지 매입비로 28억을 책정했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지매입비는 당연히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토지매입이 등록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등록금책정시 재단전입금은 항상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렇다면 재단전입금을 한번 살펴보자. 95년 예산상 재단전입금은 약 54억 책정되었으나 작년 12월말까지 '학교비회계 자금운용계산서'를 보면 전산망 2차설치, 서울 경주 기기매입, 도서관 광파일시스템 설치, 도서분발장치

부금 수입 2천만원으로 올해 1·2월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재단전입금은 2억도 채 되지 않는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15억을 포함한 약6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3월초 한국대학연구소의 발표를 인용, 본교의 학교 법인 이월액이 2백79억이라는 모일간지시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학교측에서는 이월액중 신입생 입학 등록금도 이월액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월액이 포함된 작년 12월말까지의 자금운용계산서를 보면 이시사가 전혀 근거없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적립예금지출이 약1백40억이고 유동자산증가가 약 45억6천만원으로 이것만 봐도 이월액은 약1백85억이 넘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직원은 "예산결算是 학교경영의 기본 방침이다"고 말한다. 예산보다 아껴썼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월금액을 그대로 문제 계속 등록금을 고을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한 학생은 "이는 계속 고을인상을 유지하려는 학교경영의 의도"라고 말한다.

매년 등록금 책정에 따른 학교·총학생회의 협상지리에 제시되는 자료의 정밀성과 신빙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측은 대체로 학교측이 제시한 예산 결과가 실제 집행내역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작년 협상지리에서 제시한 95년도 예산액정액과 올해 제시한 자료도 크게 편차가 나고 있다. 수입부분에는 등록금 예상수입중 올해의 편입학생 1천1백60명의 등록금 자연증가분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학교당국은 예산 편성에 있어 무조건 남기고보자는 식으로 과대편성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출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려는 의도로 납입금을 인상해서도 안될 것이다. 합당한 책정과 학생들의 위해 쓰여진다는 신뢰가 있을 때 학생들의 이해와 납득할 수 있다. 단순히 등록금인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부)

뜻깊은 만남

소녀에게 얻은 깨침



김형균

어느 한 소녀를 만났다. 팔년 전 장애인을 잃어버린 김씨가 열렸을 때,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던 길에 만났다. 촬영대에 앉은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수많은 만남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고 깊었다. 셔터를 못 누르고 다가갔다.

사진을 찍어도 되겠는가. 이곳이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 일이었다. 카메라를 걷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되었다.

재활학교로 자주 찾아갔다. 아산만에 소풍도 갔다.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도 빵집에도 우리 직장에도 서로 오갔다. 정이 들었다.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다가 부끄러워 하기도 했다. 그녀는 많은 정을 내비추었다. 항상 의롭던, 크게 걸들던 그녀는 그렇게 나에게 의지했다.

세월이 흘렀다. 신체의 약화와 수술이 행해질 때마다 그녀는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 했다. 세월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그 싫어하던 중학교도 벌써 졸업했다.

나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옛처럼 그녀를 자주 찾지 못했다. 두 달 걸려가 녀를 걸러, 그러다가 1년에 한 두번만 되었다.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함과 미안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바쁘신데...

나는 책임 질 수 없는 정을 가꾸었다. 어린 소녀의 가슴에 정을 박았다. 두려워하던 대로 나쁜 자가 되었다. 생각이 나 보고 싶을 때마다 나는 크게 깨달았다.

합결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만한 정의 힘을 갖추지 못하면, 장강(長江)의 물결처럼 깊고 오래 흐를 힘이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두려운 것이라고.

대학 시절, 위수령을 전후로 그렇게 외쳐대던 온갖 정의로운 단어들도 퇴색해지고 웬만큼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어떤 어떤 노력을 기울여 길을 가꾸어 가갔다면 기세가 흩어져버린 오늘 나는 다시금 수행의 의욕을 품는다.

다시금 그녀에게 찾아가 우스개소리를 하고 영으로 보고 가족들이 두터운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 보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 되겠지.

불지사 대표

본교의 등록금 협상사례를 살펴본다

형식적 문건 작성에 그친 합의 사항 태반

등록금 책정협의회 구성 최대 쟁점으로 부각

△재단의 참여속에 등록발전협의회와 등록금책정협의회의 건설들이었다.

93년 '민족통국 자주중흥의 대의 아래 등록금 고지서협상의 발부에 동의한다'

3월초에 조인된 등록금협상 합의문의 전문이다.

전년과 달리 등록금 협상이 조기에 합의되고 이후 고지서가 발부됐다.

17.5%로 책정되었던 인상률은 15%로 인하했으며 신입생들의 등록금은 환불됐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캠 △장기적인 도시관 전변 개보수 실시 △매장 및 휴게시설 확충 △강의환경 개선 및 예술품 대 가전품 전량 확보 △과 단과대 학술공간 확보 위한 강의실 다용도화 △취업준

제 해결위한 토대 마련 △장학금 수혜확대 △복합사업 공동관리위원회 건설 등 주점은 △장단기 마스터 플랜 제시 △정적 독자형 건축 건립 및 시설 확보 △서울-경주간 온라인 행정망 구축 △교직원 확충 등이다.

94년 "수년간 진행돼 온 학원자주화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오류를 극복하는 학원개혁운동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제 26대 총학생회는 몇몇 단대의 빈발속에 당초 책정안보다 2%인하된 14%의 인상률에 합의하였다.

그 당시엔 등록금고지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서명이 아닌 실무책임자인 학생처장의 서명에서 이뤄졌다는 한계를 보여 어려움을

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실습비는 등록금 인상률과 동등로 인상하며 그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등록중흥의 의지대로 동야의 제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등록중흥합동회를 개최한다(1억확보) △등록발전 협의회 건설 △대학평가를 자체실시하고 등록금책정 협의에 공개한다 △서울-경주 양캠에서 요구한 학생복지안은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학생이 공동노력해 해결한다 등이다.

95년 "몇 %를 올리느냐"가 문제가 아닌 "등록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하느냐"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등록금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신입생들이 취업

하고 협상을 이끌어온 행정보직들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평행한 줄다리기에 학생들은 점점 무관심을 재고 이후 등록금 협상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물을 남기지 못한채 15%인상으로 책정되었다.

이상 92부터 95년까지의 등록금협상과 그결과를 살펴본다. 이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등록금협상이 단순한 등록금 깎기 차원이 아닌 학교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의지에 그 뜻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의 장이 기간 등록금협상의 본질인 것이다.

등록금협상을 통해 합의한 안건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간 논의되었던 등록금 책정협의회에 관한 건은 아직도 등록금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단지 문서에만 묻혀버린 합의사항도 태반이다. 또한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이후의 마찰이 협상기간중의 대립보다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인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후 전개될 '96등록금협상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본다. (김희동 기자)

CASIO advertisement for calculators. Title: 입학에서 졸업까지 CASIO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平生之友". Models shown: FX-4500P, FX-5500L, FX-6300G, FX-9700GH, CFX-9800G, FX-7700GH, FX-7300G, FX-5000F, FX-4200P. Includes a list of distributors across various cities like Seoul, Busan, and Daegu.



정기자란 명찰을 내 양심에

95년 10월 일사 3차로 신문사들 들어온 이후 내에선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짜레짜레 시간표와 규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공동체적인 활동을 통해 모든 것을 잡고 견디는 인내심과 보다 더 나은 기사를 쓰기 위해 토해내기도 여러번 바꾸는 노력들... 그전의 나에게 없던 것들이 지금은 나의 생활속에 박혀 있다. 한때의 방황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가르쳐 주었으니...

그전까지의 이기적이고, 무기력했던 내가 지금의 나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까뜨려야 할 부분도 장점 못지 않게 많았다.

짧은 수습기간을 돌이켜 보면 난 장단점을 동시에 배웠고, 단점을 더 많이 배웠기에 더욱 아파하고 방황했다. 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신문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라 믿고 지금이어서야 깨달았다.

그러나 이 단점은 한 개인의 힘

만으로 풀기엔 불가능하다. 개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어울려야만 가능한 것이다. 나의 이런 노력 이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언젠간 이루어 내리라는 희망찬 기대만이 있을 뿐이다.

수습이라는 알속에 있을 때 지켜 주던 형들은 더 이상 없다.

지금부터 배운대로 최선을 다하는 실천이 있을 뿐이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제 '정기자'란 명찰을 내 양심에 단다.

내가 가장 크게 배운 '웃음'으로 모든 걸 헤쳐 나가겠다. 어떤 억압이나 불합리에서도 당당하고 잘 곳을 깨닫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그 '웃음'만이 내가 갖고 있는 단하나의 무기인 것이기에.

나의 모습이 곧 '동대신문'을 대변한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해 나갈 것이다.

최승일 기자 (법과대 인도철학과)



도전을 통해 얻은 자유와 여유

우유 이서 혹은 제기탈'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부터인지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지은이에게 배어버린 이 말들, 이런 말들을 가끔은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을 앞에 서도 개의치 않고 내뱉어 버린다. 지은이는 이런 식으로 필자를 내뱉어 버리려는 것은 아닐까?

수습이라는 딱지를 달고 6개월을 지내는 동안, 탈수습기를 쓴다는 형식을 거쳐 정기자가 된다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겼다. '어느 위치에서건 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모습일텐데'하며.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모든 것에 후회하지 않으려는 내가 약간의 힘들다는 말을 내뱉으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고비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긴 정기자가 대단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단지 형식으로써 보여지지 않았던 필자가 극복의 대상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금까지 신문사라는 조직이 만들어내는 힘이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그러면서 그속

로 무조건 달려가는 것같은 나 자신에게 많이 소리치고 발버둥쳤다. 영화 '쇼쇼크 탈출'에서 주인공 연다가 자유를 찾아가는 부분보다 책봉지나 레드가 쇼쇼크에 걸려져 어디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을 꼽았었던 나이기에.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날 길들이고 율아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반발하고 쫓고 있는 틀이라 생각한다. 그런 틀에 대한 나의 도전을 통해 통쾌함을 느끼고 자유나 여유를 찾는다. 그것을 위해 육체적 고통도 감수해야 하지만 거기서 얻는 순간의 여유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느낀다. 그순간의 달콤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 모른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어떤 사회학자의 말처럼, 앞으로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는 모든 것 이상을 표출해내려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하기위해 난 언제나 몸에 밴 말들을 내뱉을 것이다.

고지은 기자(사회과학대 사회학과)



나는 등이 푸른 자유였다

죽어버리려 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꿈을 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려 했다.

.....검고 푸른 해초들이 종아리에 부드럽게 엉기고, 맑은 날이면 무수히 수면을 통과해 부서져 내리던 햇살들, 가끔씩 반짝이던 달빛은 은빛 비늘을 무수히 반짝이며 고통어때가 내 곁을 스쳐가기도 했는데..... 그것은 환희의 빛깔이며, 짙은 초록의 들을가진 은빛 물고기며, 화살처럼 자유롭게 물속을 오가는 자유의 때들, 초록의 들을 가진 평평한 생명체들.....

공지영의 (고등어)

.....연젠가 나도 꿈꾸었다. 눈이 시리게 부서져 내리는 햇살 사이로 내 초록의 들을 내보이며 은빛 수면을 마음껏 가르고 다니고 싶은 욕망..... 아무 맛도 없는 좁은 강기가 아닌 짙푸른 소금의

냄새가 나는 넓은 바다를 보고 싶다는 희망..... 이것이 나에게 신문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힘들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 항상 틀에 짜여진 일정과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만 가는 의무와 책임..... 그러나 난 적어도 소금에 절여져 아무 희망도 없이도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생선은 아니고 싶었다.

.....신문사라는 바다의 냄새를 맡아 본 사람만이 안다. 그 바다의 냄새나지 않는 대기의 냄새와 따뜻한 짙은 초록의 수면, 그리고 그 바다 안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등이 푸른 생명체들.

이젠 넉넉한 바다를 헤엄쳐 다니며 희망으로 온몸을 떠는 등이 푸른 자유이고 싶다.

김상민기자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신문에 꿈을 실으며 먼훗날 관조할 그 날을 그려

'붉은가마'란 영화에서 받은 충격을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강에서 떠오른 시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생선소년의 미소가 겹쳐진 영상, '인생'을 자문해 보게 했다.

내게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16살. 꿈처럼 되지 못하는 나약한 현실을 질타할 만큼 순결한 이상을 가졌었다. 그리고 스무살의 가을을 기억해 본다.

5-18, 학부제... 학생들 함성이 온 교정을 메웠던 그 가을을 그 때의

난 삶의무게에 짓눌려 꿈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질타하곤 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차 깨닫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보게된 '기자모집광고' 생애 처음으로 나에게 '하고 싶다는' 절실함을 안겨준 그 광고는 꿈을 분발하는 커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동대신문에서의 6개월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간다. 아찔했던 환영식(?) 계속되는 학습, 학기중 수업과 병행하느라 정신 없이 풀었던 졸업장, 방종의 세미나... 하루하루가 치열했던 그 나날들, 아쉬움 보다는 희망을 느끼게 하는건 나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떨어지는 일애, 오기와 자신감을 느끼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안도하게 하는 건, 이런 일련의 일과 만남 속에 나의 자아가 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가 끝나자,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

"꿈처럼 현실이 모두 아름다운 건 아니야. 꿈을 이루려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게지. 참 웃기는 일이야. 청년시절엔 꿈이라는 걸 주고, 늙어서는 인생을 관조할 나이를 주니 말야"

지금 나에게 꿈을 간직한 젊음과 확신이 있다. 그 꿈을 동대신문에 실어보면서, 먼 훗날 웃으며 인생을 관조할 그 날을 떠올려 본다.

한누리 기자 (문과대 국문과)



무쇠같은 수습기에서 강철같은 정기자로

3월. 세상의 만물들이 겨울을 벗는 계절. 봄. 지금 나는 겨울과 함께 수습을 벗는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이라는 수습모집 광고 문구에 이끌려 어찌 먼 막연한 희망을 갖고 원서를 내기로 결정한 후 엉뚱하게 본관에는 총무과를 찾아가기도 하고 학생회관이라는 낯선 건물에 신문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어리숙한

새내기. 어찌같이 느껴지는 6개월 전 내모습이다.

공강시간의 취재, 수업 후의 회의, 황금같은 토요일은 조판소에서 하루종일 보내야 하는 여유없는 신문의 일주일 생활과 대학일시 때 하지 못했던 밤샘기를 꼬박꼬박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하 나의 '관문'이라는 것이 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전에 없이 흔들리는 동기들이 많이 보이고 나 자신 역시도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지난 며칠간... '탈수습기'를 쓰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신문을 만드는 사람'만이 신문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신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동료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싶

탈수습기 참된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싹튼 사랑을 느끼며

미팅, 여행, 아르바이트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것들이다.

나 역시 1학기때는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 이런 생활을 했지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2학기부터는 필자 달라지자는 마음으로 신문사에 들어왔다. 친구들은 평소 노는것을 좋아하고 게으른 내가 바쁘고 힘든 신문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일사적 현상일까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수습기간이라는 힘들고 고달픈 6개월의 시간을 거쳐 이제 정기자로 탈바꿈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것은 '보람'일까라 여겼었다. 하지만, '보람'만이 아닌 '사랑'도 느끼게 된다.

맨 처음 신문사에서 생활을 하면

보람을 느끼게 된다. 첫 기사가 지면과 겹쳐졌을때의 그 뿌듯한 느낌과 학교내의 상행들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는 보람.

그 보다 신문사 생활을 계속 하다보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사랑'이라는 싹이 싹튼다.

'사랑과 사랑' 비슷하게 생긴 이 두말처럼 사람관계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걸까? 그러나, 여러사람이 모여 있고 서로 말을 건네기만 한다면 사랑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동기와 형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다. 고민이 있으면 함께 밤을 세우며 이야기를 하고 기쁜일은 함께 나누고픈 사람이 있기에 힘든 6개월을 지낼수 있었던게 아닐까?



보람과 사랑을 느끼는 생활을 할 때 어떤 힘든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부여를 하고 사람을 대할때도 건설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정말 관심을 갖고 대하게 됐다.

6개월의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나는 정말 큰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이태훈 기자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하얀 종이 위에 개성있는 그림을 새겨야 할 때

그는 내게 물이 되라 한다. 나는 불로서 타오르려 한다. 그는 내게 미소가 되라 하지만 그러나 아직 내 안에 큰 울음이 넘쳐난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라 하니 나는 그럴 수 없다 한다.

- 류시화 시중 -

6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달려오면서 뒤돌아 보지 않았다. 스스로 마음 먹었기에 두려움도 후회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수습의 벼랑에서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 보고 하늘로 날아 오려 한다.

신문에 대해 무지한 난 수습기간

동안 백치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하얀 종이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이 담긴 그림을 새겨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엔 혼돈과 시련이 있었다. 배워야 한다는 자각과 생소한 교육 속에서의 혼돈, 그것들이야말로 내 자신을 신문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였고, 이자리까지 끌고 온 강제제였다.

나비들은 송충이 시절 수 많은 나뭇잎들을 갉아먹고, 긴 겨울동안 벼대기 속에서 숙면을 취한다. 그리고 곤 거울이 지나면 재 놀고 넓은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화려한 날개를 펼친다.

이제 난 나비가 되어야겠다. 더



이상 울추리고 주저하지 않으리라. 한 개뿔의 곱질을 과감히 벗어 던진채, 더 진보된 체험을 얻음과 동시에 더 깊은 고민과 시련을 안기 위해 날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은 법적이 보다 쉽다. 밤을 세우면서 쓰고 쓴 나의 기사가 신문지면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독자 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신용우기자(상경대 경영경영학과)

나비의 첫 날개짓



처음 신문에 들어와 옛신문을 뒤적이다 선배들의 탈수습기를 보고 '킁킁' 웃던게 기억난다.

선배들의 탈수습기엔 전장에 나가는 용사의 장엄함과 어린아이의 일가같은 진지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뻘 '탈수습기가 별건가?'하며 가득 씌어져 있는 미사여구에 '흠'하며 코웃음쳤는데, 아무래도 미래의 내 후배도 나의 탈수습기를 읽고 코웃음 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탈수습이란 변태기가 나비가 되는 바로 그 과정이 아닐런지. 탈수습기는 아마 변태기에서 나온 나비의 첫 날개짓일거다. 그 첫 날개짓은 당연히 장엄하고 진지해야하거에...

그런데 첫 날개짓을 앞두고 나는 안절부절했다. 양탈과 실수의 출몰을 면호사였던 수습이란 보호막을 벗고 앞으로 어떻게 헤나가고할지.

너무너무 걱정됐고, 혹시 나는 나비가 되지만 애벌레의 흉측한 모습은 아닐까하는 섬뜩한 생각도 들었다.

나비가 뿔뿔 흉측한 정기자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수습이란 껍데기로 계속 위장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동대신문사 '제37기 문화부 박민진기잡니다'라고 말하길 내심 얼마나 기다렸던가. '동대신문사 제37기 수습기자 박민진이에요' 혹은 '문화부 박민진이에요'하여 꾸뻑 꾸뻑 나를 소개하던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그러나 이제 난 내 이름 뒤에 조심스레 기자란 단어를 붙인다.

"꼭꼭 붙여가지, 떨어지지않게..." 날개를 뽐내기 위해 나는 나비가 아닌, 날기위해 멋진 날개를 피는 나비처럼 기자란 호칭에 우뚝하게 보던 기자란 호칭에 충실해질 것을 다짐하며 탈수습의 첫 날개를 편다.

박민진 기자 (법과대 법학과)

학우들의 따뜻한 가슴 속으로



이제 난 스무번째의 봄과 함께 또 하나의 웃을 입으려한다. 탈수습! 그리고 정기자!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제서야 불빛을 찾은 느낌이랄까.

신문사에 와서 처음 출입처 찾았던 때가 불현듯 떠오른다. 너무 떨려서 뒷방이 문앞을 서성이며 입술을 깨물던 기억. 2장짜리 취재 기사를 쓰며 실망하고 나면 또 내게 나타나는 빨간색으로 도배된 원고를 바라보며, 난 '기자'라는 일말의 우월감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려야만 했었다.

이렇게 시작했던 내 신문사 생활은 내게 큰 혼란과 힘겨움을 안겨 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큰 뿌리를 자른 듯이 있다. '이 기자! 싸우자!', '내이름 성씨에 대하라는 단어를 붙이지' 어쩌다 하나의 구호처럼 불리워진 것이다.

그때! 어쩌면 난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매일 매일의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때

론 하나하나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가고, 내 의지가 꺾이고 하는 모습들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난 고민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내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있다. 시련속에서 단단해졌다고 했던가. 이제 난 더욱더 무거운 정기자의 웃을 입으려 한다.

취재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도서관에서, 잔디밭에서, 동대입구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강의실에서, '동대신문'을 읽으면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수많은 학우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난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뜨거운 가슴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독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난 평온하다.

이제상 어떤것보다 소중한다고 느껴지는 '동대신문'을 읽는 수많은 학우들의 따뜻한 가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태훈 기자 (공과대 전자공학과)

수습이란 작은 불씨를 간직하며



"호르록~" 두번의 계절이 지난 봄의 문턱에서 후보선수로서의 위령일이 끝났다.

6개월의 위령일기간 동안 공동체적 관습에 물들어 버린 나 스스로를 똑바로 세우기란 쉽지 않았다.

세상에 쉬운일이란 없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의 땀방울이 있어야 하며, 은근한 끈기가 있다면 그 결과물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정기자라는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운동선수들의 고된 훈련과 맞먹는 육체적-정신적훈련을 했다.

그 고된 훈련은 마치 산악인이 산을 정복할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해 또 다시 험하게 산을 오르는 것처럼 내 기사가 지면화되는 정상정복의 성취감으로 날 증독시켜 극복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람은 누구나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특히 나는 DEAD

LINE이 다가옴으로 인해 더욱 그 느낌은 답아오른다.

전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불투하고 더러운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거에 기자가 쓴 기사의 90%는 취재하고 뛰어다니 소비열량이며, 10%는 그 기사의 문장력이다.

그래서 모든 기사는 그 기자의 삶과 피가 모여진 자식과는 같은 것이다.

이 봄 수습을 끝낸 나와 동기들은 '정의의 추종자'라는 넉넉함을 달고 치열한 게임을 시작할 것이다.

'96개월이 시작되면 파울과 반칙, 격렬한 몸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공인의 일각에 불과했던 수습기간의 고민이 그리워 지겠다. 그런 수습기에 대한 그리움은 나의 원초적인 승부욕을 타오르게 하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될 것이다.

이성용 기자(인문과학대 고고미술사학과)

“공간문제 마찰 언제까지..?”

불대·경상대·야총, 자치공간요구 접거



◇ 불교대, 경상대, 야간강좌총학생회는 '자치공간확보'와 '공간배치에 학생참여'를 요구하며 접거농성에 들어갔다.

불교대학총학생회는 불교대 학생자치 기구가 이전할 공간인 학술문화관 1층 4개실이 예전에 사용하던 본관의 8실(집행부실, 대의원실, 문화부실, 편집자료실, 선수연실, 3개과 학생회실)에 비해 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아래의 4개조항을 요구하며 지난 2일 학술문화관 3층 강의실 3개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요구조항은 △학술문화관의 공간 재배치 논의에 학생참여를 보장 △ 불교대학의 독자적학과 문화 발전 위한 전용층을 보장 △학우들의 생활공간이 되어온 절대자치공간을 보장 △불교대학 전용강의실 3개이상 보장 등이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총 5실 제공을 약속했고 학생회실은 3층으로 이전 3층을 불교대 전용층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선방을 불교대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2학기부터는 2~3실의 전용강의실을 제공하겠다고 불교대 전용세미나실도 학생들의 요구가 개방하겠다고 제

안했다.

이에 불교대학총학생회는 3층의 5실은 1층의 4실과 크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며 세미나실 또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점거농성을 지속했다.

그러자 불교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들은 교육자로서... 학교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교수의 증정어린 대화와 설득에 등을 돌렸다... 강의실 점거농성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혼란이 계속되어... 동국인 가족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아감을 보면서... 교수들의 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섰다.

이 성명서 발표후 불교대(학생회장= 방준배·선학4)는 "공간문제는 근본적으로 학교당국의 문제이며 '총장님께 드리는 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며 우리가 내건 요구는 번치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대 학생회(회장= 허재기·경

제4)는 지난 13일 동국관(L212-213)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새내기 자치공간확보' '전용강의실 보장'을 주장하며 점거한 두 강의실은 사회교육원 강의실과 경상학부 신입생 학생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L213 강의실은 외국어 교육원이 오늘(18일)부터 영어회화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경상대측은 "새내기 자치공간의 부재와 학교측의 무리한 강의실 배치에 문제가 있어 점거에 들어갔다"며 점거 동기를 밝혔다.

또한 경상대 학생회는 경상학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학교 곳곳에서 '신입생 자치공간 확보'를 주장하며 선전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 구정주·경영3)는 지난 13일 기초학생회보장과 학생자치공간 확보를 주장하며 동국관 2동 4층점거에 들어갔다.

야총측은 △95년 신설된 신관, 광교, 중문학과 학생회 자치공간을 95년 합의대로 즉시 마련할 것 △신방·광고 실습실 및 중문과 어학기 자체 마련 △야간강좌 경상학부의 새내기 자치공간 마련 △94년 신설된 반도체학과와 전산통계학부 각각의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마련 △경상학부 전공기초과목의 분강에 따른 전공수업 채움과 인원에 따른 강의실 마련 및 공간재배치의 조속한 실시 △수업결손금 5%의 특별장학금 지급·사용형태 공개 △생활도서관 및 야간강좌 전용 PC실 마련 계획을 즉각 수용·진행할 것 등의 7개항을 요구했다.

학술문화관으로 이전한 대학원이 사용하던 L동 4층은 현재 야간강좌와 신입생들의 학생회 등으로 사용중이다.

'성 문화상' 현상 공모

열린토론 통한 '성'공론화 기대

제11대 총학생회(회장= 서정은·역교4)는 '제1회 동대 성 문화상 현상 공모'를 실시한다.

동학의 전 학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각종 시각 창작물을 모집부문으로 하며 1등에게는 50만원, 2등에게는 30만원 3등(2명)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지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에 대해 총학생회장

은 "여태까지 어떤 공적인 토론과 대화로 부터 배제되어온 성의 영역을 사회·정치적 영역으로 끌어 올리고 성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정한 비판의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모의 참가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고 발표 및 시상식은 대동제 기간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입생 특별시험 결과 발표

영어 16명·컴퓨터 실습 10명 합격

지난 9일 실시된 신입생 특별시험 결과 실용영어에 21명이 응시하여 16명 합격, 컴퓨터실습에 18명 응시, 10명이 합격했다.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 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된 특별시험은 실용영어 I(1학년)에서 듣기부문, 컴퓨터실습 I(2학년)에서 윈도우(워드, 엑셀, 인터넷)부분의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특별시험은 교과과정 자체가 실용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험 과목도 작년의 국어, 영어, 일반수학에서 크게 변경됐다.

교무처(처장= 장오현)의 한 관계자는 "지원률은 작년보다 낮지만 합격률은 훨씬 높다"며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예기했다.

이과대, 전학대회 개최

자치공간확보·일산이전 철회 주장

이과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가 자연과학부 체계 합의와 이과대학원 자주화추진등을 안건으로 지난 14일 치러졌다.

이과대 각학과대표, 자연과학부 반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자연과학부 학생회의 토론 활성화와 15일 1학년 정·부학 생활장 선출, 자연과학부 공간 마련, 일산이전반대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결정된 요구는 △자치공간과 도서관 재배치 △등록금 책정 협의회구성 및 등록금 인상 철회 △학부제 시행의 혼란을 해결할 논의구조 마련 △일산이전철회 등으로 지난 15일 학교측에 전달됐다.

이과대, 전학대회 개최

자치공간확보·일산이전 철회 주장

이과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가 자연과학부 체계 합의와 이과대학원 자주화추진등을 안건으로 지난 14일 치러졌다.

이과대 각학과대표, 자연과학부 반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자연과학부 학생회의 토론 활성화와 15일 1학년 정·부학 생활장 선출, 자연과학부 공간 마련, 일산이전반대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결정된 요구는 △자치공간과 도서관 재배치 △등록금 책정 협의회구성 및 등록금 인상 철회 △학부제 시행의 혼란을 해결할 논의구조 마련 △일산이전철회 등으로 지난 15일 학교측에 전달됐다.

동아리 재등록 실시

제12대 동아리연합회(회장= 최동현·국교4)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동아리 재등록을 실시한다.

이에 각동아리는 재등록비 2만원과 동아리 회원명부, 95년 활동계획, 95년 사업평가, 동아리 회칙, 활동계획, 대의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유아(역교4) 부동연장은 "재등록을 통해 신규동아리 등록, 동아리 승격심사, 동아리 감사 등이 이루어지므로 제 기간내에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어교육원, 동국관으로 이전

경상대 점거로 LAB 수업 차질 우려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배·영문학) Lab강의실이 오는 18일 동국관 L동 2층과 3층으로 분산 이전된다.

교수회관 2층에 있던 외국어교육원 Lab강의실은 지난 11일 동국관 M동으로 임시이전된 바 있다.

그러나 Lab강의실인 L213을 경상대(학생회장= 허재기·경제4)가 학생자치공간과 전용강의실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있는 상태여서 Lab강의실 예정일인 18일까지 점거가 계속되면 Lab수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교육원은 현재 교수회관에 남아 있는 사무실과 시청각실도 이날 새로 이전할 예정이다.

기원학사입사생 모집

지방 학생을 위한 본교 남자기수사인 기원학사에서는 신입사생을 모집한다.

5명을 뽑는 이번 모집에는 불교 신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사비는 매달 10만5천원이고 신입생은 입사비 5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

신청기간은 3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이고 학생과에서 문의를 받는다.

수강신청 최종 확인

9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최종확인일을 오는 21일 실시한다.

최종확인일은 각 대학 교과과나 학과에서 실시하여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수강신청확인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교무처(처장= 장오현)의 한 관계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과대, 학생회장선거

원진욱·윤성진 단독 출마

제28대 문과대학 정·부 학생회장 후보로 원진욱(사학4)·윤성진(국문4)조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자주의 시대 통일 시대를 다짐하는 명진 청년여! 명진인의 자부심으로 내일의 참사를 개척하라!"는 구호를 내건 원·윤조는 지난 15일 명진관 앞에서 1차 유세를 가졌으며 오는 19일에 2차 유세를 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된다.

한편 제9대 사회과학대 선거는 이번에도 후보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불교대, '새날학교'개최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불교대(학생회장= 방준배·선4) 주최의 새날학교가 오는 22일까지 개최된다.

새날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5일엔 '대학·대학인의 삶과 학생회'란 주제로 대학의 역할과 대학인의 삶에 대한 고찰 및 학원자주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19일의 주제는 '전공소개'로 불교학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전공별 설명의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22일에는 대학·대학문화란 주제로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학년학생회 준비와 건설 및 신입생 환영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교대, '새날학교'개최

불교대, '새날학교'개최

불교대, '새날학교'개최

불교대, '새날학교'개최

학·전·무·대

마시고 죽자

○...술이야기

매년 이맘 때쯤이면 대학가에서 나오는 기사, 소문. "새내기 00가 술 마시다 죽었다더라"

"꽃쫄 기쁘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왔는데 환영식하다 죽다니..."

올해도 예외없이 총남대의 한 학생이 선풍기에 관하는 술을 마시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났다는데.

새학기를 맞아 초저녁부터 '술렁거리는 동국대 후문에서 들리는 한마디 "마시고 죽자!"

안들려요 /

○...항상 줄이 있는 곳, 화장실이 나오나요? 화장실 말고 다른 곳, 바로 공동전화부스조.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항상 몸살을 앓는 공동전화.

그런데 원인이요? 한기한 전화기가 있다는거예요. 어느 전화기 나오나요? 바로 다함관식당 전화기요.

발머으며 약지지질 퍼드는 소리, 쇠기 부시는 소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상대방과의 대화가 힘든거요.

이제야 전 알겠어요 버스정류장에 왜 문닫린 공동전화부스가 있는지.

내수침 들리도

○..."에이 이놈의세상!"

문과대의 어느 한 학우는 학교에서 관료주의 행태를 절실히 느꼈다던데.

다름아닌 학생수침이 나오는 한창인데 조교실, 과학실험실, 문과대 학생회실을 방문해도 담당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란 뜻이 행동을 한다고.

수침비 2천원은 냈지만 학생수침을 받을 길이 막막해 보이는 그 학생 "수침이 원래 왜 이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니!"

부전지전

○...전세마을 법정서 방책적 폭행!

지난 11일 열린 전·노씨의 오전 공판위 법정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피고인 가족들이 '죽여라!' '발아라!'며 주먹과 발길질을 쏟아부었기 때문.

이에 본 회전문대자 여전히 심세(?)를 휘둘러 대는 5·6공인들에게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해 할말 잃음.

오늘부터 동아리 신입생 환영 주간

영화상영·총선포럼·거리선전전 개최

동아리연합회(회장= 최동현·국교4 이하 동연)는 오늘(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동아리 신입생 환영주간'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18일) 학생회관 입방식 및 공간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와 환영주간 선포식이 학관앞에서 치뤄지며 19일에는 행사가 없고 20일에는 '좋은 영화상

영으로 '폴 메탈 자켓'이 학생회관 로비에서 6시30분부터 상영된다. 21일은 '민중연대의 날'이란 주제로 아래 민중운동관입을 주제로 한 비디오 상영 및 총선대표들이 학관로비에서 있고 거리선전 또한 행해질 예정이다. 22일은 제 12대 동연출범식이 5시부터 있을 예정이며 축하공연과 새내기 자기자랑 행사 등이 준비되어있다.

각 동아리들의 공통일정으로는 19일부터 22일까지 동아리소개가 배부되며 '동아리거리'란 분과별 공동선전이 있을 계획이다.

동아리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에 대한 동아리 홍보 및 공간투쟁 증진결과와 동아리 지역 사람들에겐 동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일레나운과 함께 새롭고 즐거운 대학생살을 열어가세요!

동일레나운
FASHION CREATOR
고객상담실(수신자부담) 080-022-5452
080-031-3813

Carte Blanche
까르뜨 블랑슈

●이베코호텔 서울여정 / 주대(목)분점 754-7786 롯데(목)빌딩14-8033 신세계(목)명동점637-0487 그랜드(목)강남점661-7511 진보동점597-1229 이도(목)상계점927-1916 크레디스(목)266-0649 현대(목)문정점16-2132 현대(목)부하점1555-0286 에일(목)889-4787 부안여정 / 부산(목)1505-6905 마린여정 / 마린여정(목)41-6918 마린여정 / 마린여정(목)421-3639 경주여정 / 거대(목)227-0241 경주신세계(목)367-1467 송정점227-8512 대안여정 / 동양(목)226-0381 대안신세계(목)422-8884 한양여정 / 한양여정(목)555-4930 삼천포점59-4177

●까르뜨블랑슈 서울여정 / 고대(목) 325-1808 현대(목)마포점555-8898 롯데(목)명동점 423-2186 광림(목)1515-6574 롯데(목)명동점636-2840 에일(목)830-1973 부산여정 / 라베라(목)741-4124 부산신세계(목)831-0821 한양여정(목)46-9222 마린여정 / 마린여정(목)41-6921 마린여정 / 마린여정(목)425-2436 롯데(목)425-4805 동아점255-2729 마포점4429-2935 광주여정 / 거대(목)224-6187 대전여정 / 동양(목)254-6148 동양점221-8884 대전신세계(목)422-8884 대전점222-2272 한양여정 / 한양여정(목)555-9055

영상매체비평

—광고편—

영상매체비평 신설
'영상문화시대, 그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영상문화-광고, TV, 영화 등—
그 다양한 영역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상품생명인 브랜드 자산 인정에서 출발해야



◇'바소'광고의 바소맨은 신사복의 고급스러운 고정관념을 깬다. 브랜드 자산을 표현하지 못했다.



남성 정장인 바소(BASSO)의 광고 (러시아 군대 지휘관)은 웅장한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어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신사복 광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것이 장생기 모델이 나와서 고급스러운 자에 앉아 있거나 비즈니스맨 어찌고 저찌고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바소 광고는 그런 상식을 과감하게 깨고 있다.

CF의 무대는 러시아의 크레믈린 광장이다. 과감하게도 바소맨은 스탈린의 후예들인 러시아 군대를 이끌고 구보를 하고 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크레믈린 광장을 뛰고 있으나 바소맨은 신사복을 입은 채 그들을 이끌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인 '어깨가 편안한 정장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능적으로 소구된 이미지를 한층 더 발전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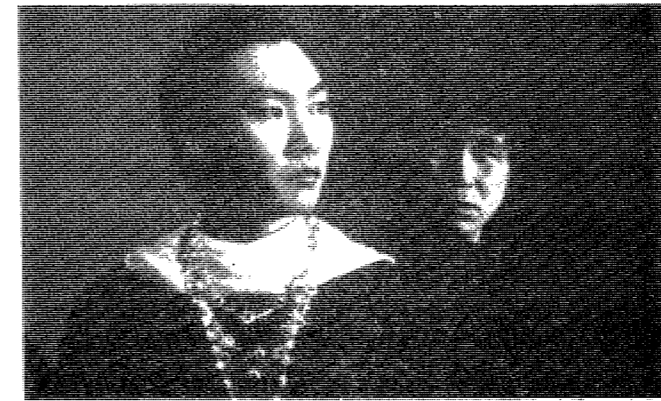
고 20대 중반에 필요한 정장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하여 더 강한 느낌의 이미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 설정한 광고의 방향성이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바소이다. 카피는 짧지만 강력하다. "세상이 움직인다. 남자가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바소" 공감을 유발하는 카피다. 세상을 움직일 정도의 내적 에너지를 갖춘 남자의 의적 이미지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도 아직은 먼 나라로 느껴지는 러시아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남자 정도가 재격일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표현 테마로 설정되었고 바소는 더욱 강력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컬러 시대에 흑백 광고를 하는게 요즘 광고계의 유행이다. 그렇지만 바소 광고는 그런 추세에 편승해서

가 아니라 광고 미학의 완성을 위하여 흑백 광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흑백톤은 장중한 배경 음악과도 잘 어울린다. 군인들이 나오는 장면은 컬러로 볼 때 보다 흑백으로 볼 때 훨씬 인상적이다. 컬러는 패션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색상이고 흑백은 무게를 실기에 좋은 색상이 아닐까?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역사나 민족 같은 버거운 주제들이 따라다닌다. 그런 주제를 잘 담은 색상이 흑백인 것이다. 페인트 박스(Paint box)기법을 이용하여 군인들을 이끄는 바소맨만 컬러로 처리해서 상품과 모델을 부각시킨 것도 이 광고의 미학에 속한다.

그렇지만 '어깨가 편안한 정장'이라는 축적된 브랜드 자산을 살리지 않은 점을 이 광고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강력한 이미지의 창출도 좋지만 고유한 브랜드 자산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상품의 생명이기 때문에 설정 브랜드 슬로건과 비주얼이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자막 처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광고인 예술에 가깝기는 하지만 예술은 아니다. 또한 대중 문화에 충격을 주는 게 광고이기는 하지만 광고가 대중 문화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광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상품 판매이며 소비자의 상품 구매는 대체로 브랜드 자산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김병희
(선연 카피라이터·광고평론가)



◇대학로에서 공연중인 '날 보러와요'(위), '미녀사냥'(아래)은 소재, 주제등 내용면에서 대중에게 다가서려 하고 있다.

대학로에서 공연중인 창작극을 보고
친근한 대중적 소재불구
관객호응 저조

"오늘은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타리 소극장(동송동)에서 공연 중인 변영국 연출, 창작극 '미녀사냥'의 그날(14일)공연은 취소됐다. 이유는 다름아닌 60여석의 관람석에 단 두명의 관객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래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창작극 공연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연주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김광림교수 연출 '날 보러와요'도 차츰 그 호응도가 줄어가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 공연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작가-연출기동 창작극 생산

가상시나리오

학술문화관에서 생긴 일

어두컴컴한 극장 안, 오늘 학교에서 처음 만나는 동국이의 동숙이는 어색한 듯 그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다.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서 한쌍의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 때는 이 때다. 동국이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동숙이의 손을 꼭 잡는다.

유치하다고 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일은 명보나 동송 아트센터, 그리고 피카디리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 일은 우리 곁, 바로 동국대학교문화관(이하 학술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학술관에 있는 168명의 중국장 때문이다. 동송 시네마텍 1관의 2배나 되는 500석의 객석에 과학적인 음향시설은 물론 스크린 또한 웅만한 중국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 중국장은 문화예술공연이나 3백여명 정도가 모이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사용되며 본교 연극영화학과와 대협공연에도 자리를 내어 줄 예정이다.

동국이의 동숙이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중국장을 나선다. 여전히 둘은 어색한 모습이다. 동국이는 다시 용기를 내어 동숙이에게 말을 걸어본다.

"배고프지 않아요?"
"네, 조금..."
동국이는 동숙이의 손을 잡고는 학술관 지하2층에 있는 교(직)원 전용 식당으로 간다. 280명, 동국관 지하 식당의 약 2배, 보리수의 약 3배나 되는 크기의 동국대학교 최대의 식당이다. 식단은 한식, 양식, 중식으로 주 메뉴가 총 300종 이상이 될 예정이다. 대략적인 식단을 살펴보면 RESERVATION MENU(SPECIAL)가 만원에서 이만원, SERVING SET MENU(한식 일품 1종, 양식 1종)가 6천원에서 8천원, CAFETERIA SELECTION (SELF)이 4천원에서 5천5백원 정도 음식값이 매우 비싼 편이다. 때는 부럽게 지갑은 좀 벅가고 뜬 모양이다. 동숙이가 처음으로 입을 연다.

"식당인데 무대가 있어 공연도 볼 수 있고 넓고 깨끗해서 좋은데 교(직)원 식당이라서 값도 비싸고 잘 못하면 학생들 사이에 위위하하 조심히 할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은 그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학술교류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 동국대학교문화관이 허우렐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만 기자)

▲어느때건 자신이 유리한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박쥐' 이야기들은 틀린 적이 있을 거다. 육상동물과 조류의 싸움이 일어났을때, 싸움이 육상동물쪽에 우세하면 그 무리에 끼어 날개를 감춰버리고, 조류에게 우세가 기울면 새들사이에서 날개를 한껏 펼치고는 새인듯 행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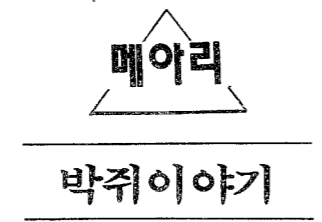
그러나, 육상동물과 조류가 화해하게 되자, 박쥐의 간사함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그 후 박쥐는 그 어느때에도 가지 못하고 의뢰자로 야행성 동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5·18과 12·12 당시 광주시민을들과 화염병을 던지고 무분별하게 총기를 난사하는 폭도로 12·12를 필연적인 군사혁명으로, 또 이로운데 태어난 전투원 정권의 미화 등 터무니없는 역사왜곡을 스스로없이 자행한 언론이 지난 해말 서로 앞다투어 과거청산, 올바른 역사의 재정립을 외쳤을 때 사

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정당활동 보도 시간을 살펴보면 KBS의 경우 신한국 37초, 국민회의 30초 민주당 24초, MBC의 경우 신한국당 1분14초 국민회의 44초 민주당 30초 자민련 23초, SBS의 경우 신한국 43초 국민회의 30초 민주당 25초 자민련 25초 등에서 보듯이 각 당 동등시간 배정원칙을 위배하고 여당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왜곡보도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방송 노조는 강성구 사장의 연임을 "총선을 앞둔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방송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이와함께 민주노총, 경찰련 등 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도 연대투쟁을 할 예정이다.

이쯤에서 각 방송당사는 '박쥐'의 최후를 생각해봐야 할 듯 싶다. (홍)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現代

“왜 자세가 안나오지?”

자세가 나온다

아무리 자세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중심이 휘어 있다면 자세가 나올 턱이 없죠. 바른 자세는 곧 척추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업에도 곧은 척추가 있어야 기업경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죠.

공정거래, 정당한 경쟁, 성실한 자세—
現代의 척추는 바로 깨끗한 기업정신입니다.
깨끗한 기업정신을 통한 올바른 기업활동,
올바른 기업활동을 통한 생활의 가치향상—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現代가 바른 자세로 앞서갑니다.

現代